

#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김여라\*

본 연구는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보호동기 요인(신종플루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개인과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구성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델(SEM)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 연구모형에서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는 신종플루 관련 보호동기 요인들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으나 ‘대처효능감’은 제외되었다. 또한 세 가지 보호동기 요인(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취약성, 자기효능감)들은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 연구모형에서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는 ‘대처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보호동기 요인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보호동기 요인들 중에 ‘인지된 취약성’과 ‘대처효능감’만이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두 연구모형의 공통점으로는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또는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질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있어서 건강보호 대상자(인) 또는 타인(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심리적 보호동기들은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신종플루, 보호동기이론, 행위의도

## 1. 문제제기

2007년부터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로 인해 2010년 1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324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7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0.1.5). 일명 “신종플루”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 조류, 돼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전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치사율은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증상은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약 일주일이면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며,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들 가운데 소수 고위험군 환자들은 감염 후 중증폐렴 혹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플루는 호흡기를 통한 비말전파와 접촉전파가 주된 감염 경로로서,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접촉 등에 의해 전염되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감염자는 즉시 격리조치하고, 이들과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는 2차 전염을 막기 위해 감염자의 가족까지도 외출을 자제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국민행동요령을 공표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yeorakim@hotmail.com)

2009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에 의한 첫 사망자가 발생<sup>1)</sup>하면서 휴교조치 발령 여부 논란, 군 휴가금지 조치, 각종 대회 취소, 유명 연예인 감염, 타미플루(Tamiflu) 항바이러스제 효능 여부, 백신접종 및 부작용,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부족 등 신종플루 관련 여러 뉴스들이 특별한 통제 없이 언론사들에 의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되자 국민들의 공포는 점점 커져갔다. 더욱이 유명 연예인 자녀의 사망(김철중, 2009.11.10)과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부족 사태(김동섭, 2009.11.17) 및 신종플루 확진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충격과 불안의 위력이 국가재난사태를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로 높아지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관한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보다는 주로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에 의해서 개인에게 전달된다(박정의·손명세, 2001; Rice & Atkin, 1989/1997; Bryant & Thompson, 2001/2005). 특히 질병으로 인한 위험도가 심각하거나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정보의 경우, 미디어에 의해 전달되는 경향이 많고,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정보를 소비한 미디어 이용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Verbeke, Vianene, & Guiot, 1999). 예를 들어, 광우병, 사스(SARS: 중증호흡기증후군), 조류독감 등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고, 그로 인한 공포감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전영옥, 2005).

미디어를 통한 질병정보 전달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도의 과장성과 선정성 문제로 논쟁이 되어 왔다(박정의·손명세, 2001). 즉 뉴스의 특성상 질병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사망자 수, 전염가능성, 심각한 사회혼란 등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시청자의 현실인식을 왜곡시켜 질병에 대한 공포나 건강염려증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를 통한 질병정보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제공하여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질병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간단한 사실들을 나열하여 실제보다 훨씬 왜곡된 질병인식을 갖게 한다는 의견도 있다(안윤옥, 1997).

반면에 미디어를 통한 질병 정보 전달은 질병 발생원인, 치료방법, 예방법 등 다양한 질병퇴치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위생 및 국가질병통제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또한 미디어의 질병정보는 미디어 이용자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켜주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쉽게 이해시켜 줌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질병을 예방시켜주는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박정의·손명세, 2001).

이런 점에서 미디어를 통한 질병 정보 노출은 미디어 이용자에게 부정적 효과과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이중적 잠재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질병 정보 노출은 질병에 대한 시청자의 잠재된 공포심을 증대시켜 질병에 대한 심각성(severity)과 자신이 질병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증대시킬 수 있고, 동시에 질병에 대한 시청자의 지식을 높여서 질병에 대한 대처효능감(response efficacy)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강화시킬 수 있다(우형진, 2007).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에 의하면, 위협대상에 대한 위협평가(threat appraisal)와 대처평가(coping appraisal)가 위협에 대한 보호동기를 발생시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된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1) 2009년 8월 15일 경남거주 56세 남성이 태국 여행 후, 신종인플루엔자 감염과 관련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급성 전염병의 경우,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공중(타인)에 대한 위생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자신에 대한 건강보호행위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한 감염 예방도 함께 수행해야 효과적인 질병 예방조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질병 관련 뉴스와 보호동기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신종플루 예방 지침에도 개인 및 공중위생에 대한 세부 절차가 명확하게 공지되어 있고, 각종 미디어도 신종플루 전염 방지를 위해 개인 및 타인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들이 전달되고 있다(“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민수칙”, <http://flu.cdc.go.kr>). 이런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1) 미디어 질병 보도의 이중적 효과

미디어 질병 보도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지만 질병 정보 전달 방식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면도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면은 질병 정보 전달의 원래 목적을 현저하게 왜곡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질병 뉴스의 관행적 보도형식을 살펴보면, 질병 뉴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질병보다는 새롭게 발생하거나 일반인에게 생소한 질병을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집중하며, 질병의 위험성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inger & Endreny, 1993/2003; 우형진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텔레비전 질병 보도형식은 사회 구성원의 긴장도를 높여서 지나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2004년 조류독감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가금류 섭취 거부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였고, 2008년 광우병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 구매 거부행동을 일으켰으며, 2009년 신종플루 확산은 대인 간 접촉에 대한 공포를 유발 시켰다(송해룡·김원제·조항민, 2005; 최명일·김경환·주지혁, 2009; 미디어오늘, 2009.8.28).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질병 정보 전달은 전형적인 위험보도 양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형진, 2006). 2009년 신종플루 관련 보도에서도 ‘변종 출현’, ‘팬더믹(pandemic: 대유행)’, ‘비상사태’, ‘사망자 급증’ 등 불안을 야기하는 헤드라인이 대세를 이루었고, 과거 참혹했던 질병에 해당되는 ‘페스트’,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과 연계하여 관련 보도를 배치함으로써 공포감을 더욱 높이는 경향을 나타냈다(김은옥, 2009).

미디어 질병 보도는 관련 정보를 혼란스럽게 전달하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질병의 원인을 특정 동물에 있다고 보는 사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정 질병에 강한 이유는 김치 때문으로 보는 사례”, “특정 질병이 현저하게 부풀려진 이유를 관련 제약업계, 학자, 세계보건기구의 음모론으로 보는 사례” 등 진위 논란이 진행 중임에도 진위 확인과 상관없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경향이 많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대중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가 하면,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내용들이 그대로 방영되어 혼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편만섭, 2000;

머니투데이, 2009.5.19; 메디컬투데이, 2010.1.9; 한겨레, 2010.1.12).

특히 인터넷상 질병 정보의 신뢰성 문제는 미디어 질병 정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를 상쇄시키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병 정보와 일반인들의 민간요법 경험 사례, 과장된 의료정보 광고 및 오래되고 잘못된 질병 정보들은 질병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광범위하게 전파하여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전문적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인터넷상의 의료정보와 질병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내용의 근거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질병에 노출되었거나 현재 고통 받는 환자일수록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질병 정보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질병 정보 전달 방식과 내용의 신뢰성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특정 질병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질병 정보는 인간의 생명 연장과 직결되는 내용으로서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치료는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신속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의미 있고 적절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를 통한 질병 정보의 전달은 일반인에게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담 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질병에 대한 주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박정희·손명세, 2001). 특히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과 같이 대중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미디어의 경우, 다양한 질병지식과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에 자주 노출된다. 의과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보도 및 건강프로그램의 약 80%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대한의학회, 1999). 각 신문사 및 인터넷 사이트들도 건강 관련 정보를 주요 기사로 제공하고 있고, 지면기사뿐만 아니라 블로그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병 예방법, 민간요법, 후유증, 병원 위치, 치료 후기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건강 및 의학(종합병원, 다이어트, 건강의학포털, 전문병원 등) 분야의 하루 평균 방문자가 2005년 현재 약 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심우혁, 2005.11.8) 질병을 포함한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질병 정보라는 소구력 강한 메시지와 미디어 기술발전의 결합은 미디어 이용자에게 질병 정보획득의 편리성, 다양성, 신속성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미디어 이용자들은 질병이나 건강 관련 정보를 선호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형식의 다큐멘터리,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은 개인과 공중위생을 증진시키고 있다(우형진, 2007).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인터넷 접근성과 편재되어 있는 인터넷 인프라의 쌍방향적(interaction) 기능은 인터넷 질병 정보의 이용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의료정보 습득의 경우, 병원에서의 진료시간 부족,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환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질병 정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인의 인터넷 이용과 일상생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약 12%는 인터넷 매체가 질병 관련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6). 또한 인터넷을 통해 특정 질병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Madden & Fox, 2006).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6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57%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병 및 의료정보에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런 경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Monitor, 2002).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약 16.1%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 및 소비자 단체의 경우, 전체의 16.7%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에 접속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의 59%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진현, 2006).

이처럼 미디어 인프라는 질병 정보 확산 및 취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미디어 이용자가 특정 질병에 대한 지식을 통해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미디어 이용자는 질병 보도로 인해 해당 질병의 피해 정도와 예방법, 더 나아가 적합한 치료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미디어 질병 보도는 그 자체로 어떤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미디어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문헌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 질병 보도는 첫째, 정보 전달 형식과 정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인해 미디어 이용자에게 특정 질병에 대한 심리적 심각성과 취약성을 인식시킬 수 있고, 둘째, 질병에 대한 대처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특정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중적 영향으로 인해 미디어 이용자의 질병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 정도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의 신종플루에 대한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 인식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2) 보호동기요인이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질병 뉴스 이용 정도가 미디어 이용자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미디어 효과의 기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 정보 노출과 개인의 건강증진의도(intention to health promotion) 사이에 매개적 요소로서 심리적 조정 과정이 존재한다(우형진, 2007). 즉, 모든 개인들이 미디어 질병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기제 속에서 각 정보의 의미에 대한 평가과정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특정 질병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킬 것인지 판단한다. 여기서 미디어 질병 정보에 대한 개인의 평가란 질병 정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인지된 위협 평가(threat appraisal)와 대처 평가(coping appraisal)를 의미한다.

인간의 태도와 행위의 변화는 외부의 상황, 특히 공포소구(fear appeal)에 자극받아 발생한다는 의견(공포동인모델: Fear-As Acquired Drive Model)이 지배적이었지만 단순히 외부의 위협 메시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박영신·김의철, 2001; 차동필, 2005).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에 의하면, 개인이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외부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자신의 행위에 자극을 주는 몇 가지 심리적 보호동기들이 만들어진다(Rogers, 1975). 심리적 보호동기는 위협의 유해성 크기를 의미하는 심각성(severity), 자신이 그 위협에 얼마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취약성(vulnerability),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대처효능감(response efficacy)으로 구분된다.

첫째, 외부 위협 메시지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은 특정 위협 상황의 유해함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심각성 변인은 특정 상황의 유해함을 생물학적 중요성(죽음, 장애, 고통 등)과 사회적 중요성(직장, 가족생활, 사회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한다. 즉 어떤 상황으로 인해 내 생명과 나와 관계된 사회적 근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심각성에 대한 인지강도가 높을수록 이를 회피, 극복, 거부하려는 대안적 권유(recommendations)를 따르려는 의지가 강하다(Cohn & Berber, 1996; Cismaru, 2006).

둘째, 외부 위협 메시지에 대한 인지된 취약성(perceived vulnerability)은 특정 위협요소에 자신이 얼마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예상에서 비롯된다(Rogers, 1975). 즉 내 주변에 특정 위협요소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이에 접촉될 가능성과 잠재적 위협요소에 대한 거리감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질병, 재난, 사고 등 자신에게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요소가 가까이 있을수록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위에 강한 자극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위협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보호행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외부 위협에 대한 인지된 대처효능감(perceived response efficacy)은 특정 위협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위협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협 확산 및 직·간접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권고된 대처 방법이 개인이 느끼는 위협 수준을 능가할 때 대처효능감은 가장 높은 정도가 된다(우형진, 2007; Cismaru, 2006).

초기 보호동기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세 요인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행위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설명되어졌으나 모든 상황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질 때 한 개인의 행위 의지(intention)가 독립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상황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통제적 의미를 담보하는 어떤 변인이 요구되었다(Chau & Hu, 2002). 따라서 초기 보호동기모델은 특정한 영역 속에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변인을 추가하여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하였다(Rogers, 1985). 즉, 외부 위협에 대한 인지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은 특정 행위를 위해 소비되는 비용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이 권고된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질병에 대한 대처를 활성화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우형진, 2007). 자기효능감은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인지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한 행위유발을 자신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 행동 개시에 높은 설명력을 갖는 요인으로 밝혀졌다(Ajzen, 1991; Bandura, 1997).

보호동기이론의 기본전제는 인간의 행동 변화(behavioral change)가 심리적 공포(fear)와 이를 대처하는 효능감(efficacy)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보상(reward)과 비용(cost)변인을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동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Prentice-Dunn & Rogers, 1986; 차동필, 2005). 그러나 실질적 보호동기 측정에서는 보상과 비용 부분에 대한 과학적 측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도 하였다(우형진, 2007).

결론적으로 보호동기이론의 네 가지 구성요인들은 최종적으로 특정 행위의도를 지향하거나 억제하

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Prentice-Dunn & Rogers, 1986). 특히 건강 관련 행위의도 측정은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행동의지’(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로 나타났다(Carron, Hausenblas, & Estabrooks, 2002/2004). 건강증진이나 보호를 위해 취하는 어떤 행동은 행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특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특정 행동을 채택하도록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eck & Frankel, 1981; McGuire, 1984; Witte, 1992).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질병에 대한 공포인식과 질병 대처지식은 보호동기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으나, 건강증진 행위의지에는 오직 질병 대처지식만이 영향을 미쳤고, 최종적으로 질병에 대한 종합적 보호동기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형진, 2007). 이는 공포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보호동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Rippetoe & Rogers, 1987; Tanner, Hunt & Eppright, 1991). 이민규·김영은(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된 심각성, 취약성, 자기효능감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예방 행동의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신종플루나 광우병과 같이 신중 감염질환에 대한 질병예방 행동의지에는 네 가지 보호동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질병에 대한 보호동기는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정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호동기이론에 의하면,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그 위협이 심각하고, 자신이 그 위협에 취약하다고 느끼며, 선택한 대처가 위협을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믿고, 자기 자신이 권고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들이 보호 동기화되어 최종적으로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Boer & Seydel, 1996; Tanner, Hunt, & Eppright, 1991; Weinstein, 1993).

2009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플루가 대유행(pandemic)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포하였다(뉴시스, 2009.6.11). 이보다 먼저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명적인 신종플루 바이러스 창궐 예방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에 대한 위생 강화 및 예방행동 수칙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미디어를 통해 국민계몽에 나섰다(조선닷컴, 2009.4.1). 결국,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적 행동은 마스크를 쓰거나, 재채기 시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등 다양한 행동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예방 행위는 개인위생 및 공중위생을 위한 행동변화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병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보호동기(Protection Motivation)라는 매개변인을 거쳐 최종적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건강보호 행위의도의 대상 차이에 따라 어떤 인과관계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탐색적 차원에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를 자신의 위생을 위한 행동의도와 공중 즉 타인을 위한 행동의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으로 만들고 해당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개인은 미디어로부터 질병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심리적 조정과정을 통해 건강보호 행위의도를 증진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한 질병 정보는 미디어 이용자의 질병공포의식과

질병대처지식에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우형진, 2007).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미디어 이용자의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조정과정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 인식은 이후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탐색적 차원에서 건강보호 행위의도의 목적이 자신 또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해당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모형 <그림 1>로 나타냈다.

연구가설 1~4: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된 신종플루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5~8: 인지된 신종플루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9: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자의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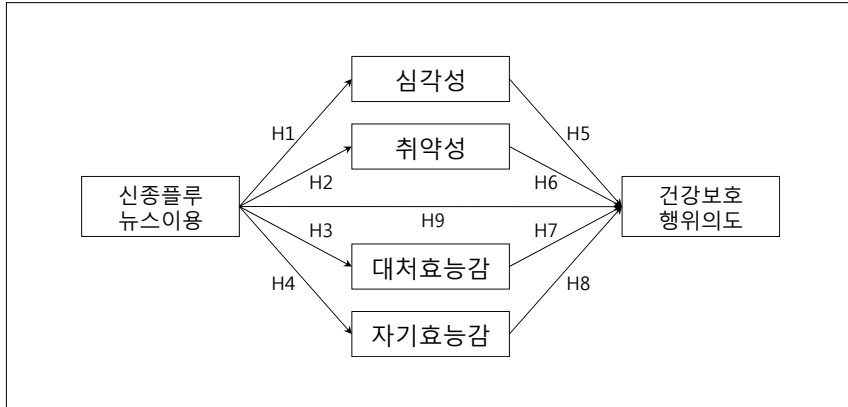
## 4. 연구방법

### 1) 표본구성

신종플루에 관한 뉴스 이용 정도가 미디어 이용자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sup>2)</sup> 설문기간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되었고, 총 464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을 제외한 분석대상 데이터는 460명이다. 응답자의 성비율은 ‘남성’이 210명(45.7%)이고, ‘여성’이 250명(54.3%)이다. 평균 연령은 22.4세(SD=2.24)였다. ‘학년’은 전체 참여자 가운데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104명(24.1%), ‘2학년’ 87명(20.2%), ‘3학년’ 167명(36.0%), ‘4학년’ 64명(13.8%)이다. 본 설문대상자의 미디어 이용정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텔레비전 하루 평균 시청정도는 전체의 38.8%가 ‘1시간 미만’을 체크하였고, 전체의 14.4%는 전혀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경우, 전체의 32.2%는 ‘1시간~2시간 미만’으로 선택하였고, 전체의 1.7%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전체의 54.5%가 ‘1시간 미만’으로 체크하였고, 전체 설문자 중 31.7%는 전혀 신문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도권 소재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측정변인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미디어 이용자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보호동기이론에 입각한 연구모형에 맞게 각 요인을 구성하는 질문항목을 제시하였다.<sup>3)</sup> 탐색적 요인분석<sup>4)</sup>(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질문 항목들이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신뢰도 분석(reliability test)을 통해서 변인을 구성하는 각 항목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에 따라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되지 않는 항목들은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각 요인은 3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고, 이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항상 그렇다”=5)로 제시되었다.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는 텔레비전, 포털, 신문에서 제공되는 신종플루 관련 정보에 대해 미디어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시청하거나 읽었는지 살펴보았다. 개인의 심리적 기제는 보호동기이론에 입각하여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신종플루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은 신종플루가 개인, 사회, 세계에 미칠 유해성을 측정하였고, 인지된 ‘취약성’은 강의시간, 식당, 대중교통 이용 시, 자신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처효능감’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가장 기본적인 신종플루 대처요령인 마스크 하기, 손 씻기, 기침 시 손으로 가리기에 대한 개인의 대처 효과 확신을 측정하였고, ‘자기효능감’은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조치,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 관련 정보에 대한 이용을 통해 자신이 신종플루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호 행위의도’는 요인분석 결과 두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개인 건강보호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우형진(2007)의 연구에서 이미 사용된 뉴스 이용 정도와 네 가지 보호동기 측정에 사용된 문항을 기본으로 삼아 본 연구에 맞게 각색하였다. 설문 문항 각색 과정은 대학생 6명으로 구성된 포커스그룹이 신종플루 관련 텔레비전 뉴스, 신문 기사, 인터넷 포털이나 블로그 정보에 대해 토의하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신종플루 예방수칙을 숙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 신종플루에 대한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항목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1차 리스트에서 각 요인당 10~15개씩 문항이 만들어졌으며, 2차례의 토의를 통해 각 요인당 5~7개 문항으로 줄였다. 최종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론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본 설문리스트를 작성하였다.

4) 요인 추출 기준은 하나의 요인에서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이 .60 이상이면서 타 요인에서 .40 이하의 조건과 아이겐 값이 1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하였다.

행위의도'로서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기, 재택근무 및 수업하기를 통해 자신의 위생을 위한 행위의도를 측정하였고, 둘째,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로서 공중화장실 사용 시 주의, 수건 공동 사용 금지, 음식물 나눠먹기 금지를 통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대해 측정하였다)(<표 1>).

<표 1> 연구모형 구성요인에 대한 통계값

요인	항목	측정문항	평균	SD	크론 바흐 $\alpha$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	x1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할 때, 신종플루 관련 보도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하는 편이다.	2.84	1.00	.86
	x2	포털 뉴스에서 신종플루 관련 정보가 나오면 클릭해서 끝까지 읽는 편이다.	2.75	0.97	
	x3	신문에서 신종플루 관련 기사가 나오면 끝까지 숙독하는 편이다.	2.67	0.97	
인지된 심각성	y1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인체 특히, 호흡기에 상당한 해를 줄 수 있다.	3.50	0.87	.76
	y2	신종플루는 우리나라 사회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3.08	1.02	
	y3	신종플루에 의한 대유행이 일어나서 세계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3.20	1.08	
인지된 취약성	y4	나는 강의시간에 친구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44	0.93	.84
	y5	나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에 의해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47	0.94	
	y6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51	0.98	
인지된 대처효능감	y7	마스크를 하면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3.28	0.89	.76
	y8	손 씻기를 잘하면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3.81	0.83	
	y9	기침할 때, 손으로 가리고 하면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3.27	0.88	
인지된 자기효능감	y10	나는 마스크를 잘하기 때문에 신종플루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2.54	0.93	.75
	y11	나는 타미플루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2.65	0.94	
	y12	나는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할 것이므로 신종플루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2.76	1.02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	y13	나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	2.76	1.04	1.86 (.70)
	y14	나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앞으로 사람 많은 곳은 가능하면 가지 않을 것이다.	2.83	0.98	
	y15	나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재택근무나 재택수업을 할 것이다.	2.48	1.05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	y16	나는 열이 나면 타인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할 것이다.	3.29	0.91	2.02 (.76)
	y17	나는 열이 나면 타인을 위해 수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70	1.00	
	y18	나는 열이 나면 타인과 음식물을 나눠먹지 않을 것이다.	3.61	1.09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네 가지 보호이용동기와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대한 설문 문항은 본 연구와 비슷한 시기(2009년 9월 26일~10월 1일)에 실시된 황치성·심재웅(2009)의 “신종플루와 언론의 역할에 관한 수용자 조사”의 측정도구와 유사하다.

## 5.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및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제시된 연구모형의 구성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은 AMOS 5.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되었다.

### 1)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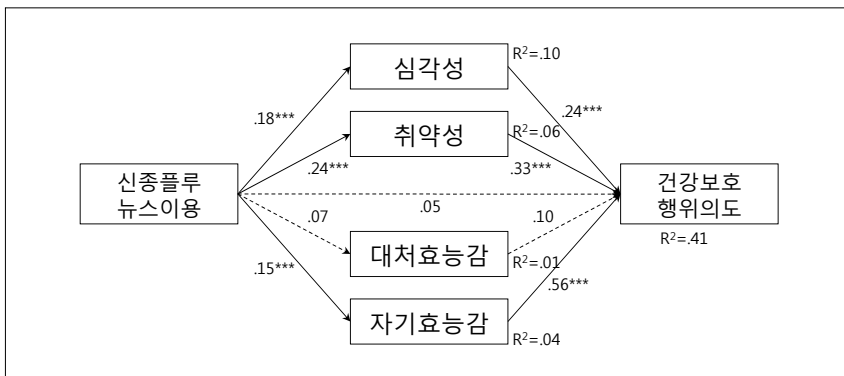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친 구성요인 간의 연구모형에서 모형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한 모형적합도를 나타냈다( $X^2=401.54$ ,  $p < .001$ ,  $NFI=.87$ ,  $CFI=.90$ ,  $RMSEA=.07$ ,  $AIC=527.54$ ).<sup>6)</sup> 카이스퀘어값과 아카이케 정보지수(Akaike information criterion)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의 크기( $n=460$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에 적합도가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김원표, 2006). 증분적합지수인 NFI와 CFI의 경우, 대부분 .90에 가까워 모형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합지수를 나타내는 RMSEA도 .10 이하로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로 볼 수 있다(김계수, 2004; 배병렬, 2004). 각 잠재요인과 연결된 측정변수의 유의성은 경로계수 '1'로 설정한 변수를 기준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중상관관계제곱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통해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50~.85)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유의미한 신뢰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잠재변수 간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심각성 10%, 취약성 6%, 대처효능감 1%, 자기효능감 4%, 개인위생 행위의도 41%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대한 연구모형의 다양한 모형적합도 지수와 관련 통계지수를 비교하여 판단한 결과,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연구모형은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은 살펴보면, 먼저 <연구가설 1>은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된 신종플루 심각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신종플루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에

6)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모형적합도는 다수의 적합도 지수(절대적합지수:  $X^2$ , GFI, RMR, RMSEA; 증분적합지수: NFI, NNFI; 간명적합지수: AGFI, AIC)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김원표, 2006). 그러나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어떤 지수도 단일 지표로 절대적 유의미성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복수 이상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이 데이터와 부합하고 있음을 검증해야한다. 특히  $X^2$ 나 AIC지수는 표본의 사이즈에 따라 모형적합도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본 수가 250을 넘을 경우, RMR, CFI, TLI, RMSEA 중 하나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Hu & Bentler, 1999; 이호준·최명일, 2006 제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될 모형적합도 지수는 선행연구자들의 조언에 따라  $X^2$ , NFI, CFI, RMSEA, AIC지수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각 지수의 최적 모형적합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카이스퀘어 값은 계산된 카이스퀘어 값과 임계치 비교를 통해  $p$ 값이 .05보다 커야 한다. NFI는 1로 갈수록 완벽한 적합도를 의미하여 .90 이상일 경우,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CFI도 1로 갈수록 완벽한 적합도를 의미하며, .90 이상일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다. RMSEA는 연구자에 따라 평가기준이 상이한 편이나 .05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하고, .05~.08 일 경우,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하며, 최소한 .10 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간주한다. AIC값은 대체모델들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하나 아카이케값(AIC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조현철, 2003).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beta=.18, t=5.33, p <.001$ ). <연구가설 2>는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된 신종플루 취약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신종플루에 대한 인지된 취약성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beta=.24, t=4.51, p <.001$ ). <연구가설 3>은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된 신종플루 대처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대처효능감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beta=.07, t=1.41, p >.05$ ). <연구가설 4>는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된 신종플루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신종플루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beta=.15, t=3.44, p <.001$ ). <연구가설 5>는 인지된 신종플루 심각성이 높을수록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된 신종플루 심각성은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beta=.24, t=2.57, p <.001$ ). <연구가설 6>은 인지된 신종플루 취약성이 높을수록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된 신종플루 취약성은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beta=.33, t=5.91, p <.001$ ). <연구가설 7>은 인지된 신종플루 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된 신종플루 대처효능감은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beta=.10, t=1.37, p >.05$ ). <연구가설 8>은 인지된 신종플루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된 신종플루 자기효능감은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beta=.56, t=6.59, p <.001$ ). <연구가설 9>는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beta=.05, t=0.99, p >.05$ ).

종합하면, 미디어를 통한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질병 정보 노출은 개인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신종플루에 관한 미디어 질병 정보는 개인의 심리적 보호동기인 심각성, 취약성, 자기효능감 요인을 통해서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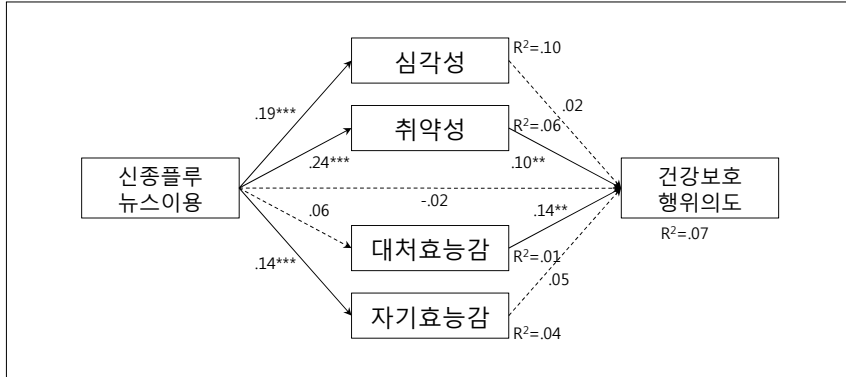
## 2)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대한 영향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가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친 구성요인들 간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표를 나타냈다( $X^2=389.48$ ,  $p < .001$ ,  $NFI=.89$ ,  $CFI=.91$ ,  $RMSEA=.06$ ,  $AIC=515.48$ ). 카이스퀘어값과 아카이케 정보지수(Akaike information criterion)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의 크기( $n=460$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에 적합도가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고(김원표, 2006), 증분적합지수인 NFI와 CFI의 경우, 대부분 .90에 가까워 모형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합지수를 나타내는 RMSEA도 .10 이하로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로 볼 수 있다(김계수, 2004; 배병렬, 2004). 각 잠재변수와 연결된 측정변수의 유의성은 경로계수 '1'로 설정한 변수를 기준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중상관제곱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통해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수가 .50 이상(.51~.92)으로 나타나 해당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유의미한 신뢰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잠재변수 간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심각성 10%, 취약성 6%, 대처효능감 1%, 자기효능감 4%,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 7%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의 연구모형에 대한 다양한 모형적합도 지수와 관련 통계지수를 비교하여 판단한 결과,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각 경로를 통해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살펴보면, <연구가설 1~4>는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의 가설검증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연구가설 1>( $\beta=.19$ ,  $t=5.35$ ,  $p < .001$ ), <연구가설 2>( $\beta=.24$ ,  $t=4.49$ ,  $p < .001$ ), <연구가설 4>( $\beta=.14$ ,  $t=3.35$ ,  $p < .001$ )는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3>( $\beta=.06$ ,  $t=1.30$ ,  $p > .05$ )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와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된 심각성, 취약성,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가 나타났으나, 인지된 대처효능감은 그렇지 않았다. <연구가설 5>는 인지된 신종플루 심각성이 높을수록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와 달리, 인지된 신종플루 심각성은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beta=.02$ ,  $t=0.32$ ,  $p > .05$ ). <연구가설 6>은 인지된 신종플루 취약성이 높을수록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된 신종플루 취약성은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beta=.10$ ,  $t=3.06$ ,  $p < .01$ ). <연구가설 7>은 인지된 신종플루 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와 달리, 인지된 신종플루 대처효능감은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beta=.14$ ,  $t=2.95$ ,  $p < .01$ ). <연구가설 8>은 인지된 신종플루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와 달리, 인지된 신종플루 자기효능감은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beta=.05$ ,  $t=1.17$ ,  $p > .05$ ). <연구가설 9>는 신종플루에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자의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beta=-.02$ ,  $t=-0.52$ ,  $p > .05$ ).

종합하면,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질병 정보 노출은 공중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와 달리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 정도는 개인의 심리적 보호동기인 취약성, 대처효능감 요인을 통해서만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

## 6. 결론 및 제언

외부자극에 의한 행위(behavior) 연구는 심리학의 태도변용(attitudinal change) 연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건강과 관련해서는 197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1980~199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이 제시되었다. 각 이론적 모델들의 주요 구성요인들을 살펴보면,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의 경우, 인지된 감수성, 심각성, 이익, 장애 요인들이 건강권장행위를 수행할 계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stock, 1974). ‘사회적 행위이론’(social behavioral theory)은 행위수행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 가치, 태도, 사회적 요인이 행위 의지를 결심하게 하고, 습관적 요인이 결합하여 행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Triandis, 1980).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사회행위이론의 기본적인 요인들에 효율성(efficacy)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Bandura, 1986; Ajzen, 1988). 이 모든 연구들을 종합한 ‘건강증진행위’(health promotion behavior)이론은 행위에 대한 건강상 또는 비 건강상의 이득과 건강에 대한 정의가 건강행위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고, 건강행위에 대한 주변인의 조언과 그 조언을 수용하는 정도에 의해 주관적 규범을 형성하여, 건강증진 행위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건강증진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위의지와 실제 행위 사이에 행동계기, 인지된 능력, 행위적 자기효능, 지지, 장애, 이전의 경험이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O’Donell & Velicer, 1998).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은 위에서 언급한 건강증진행위 관련 이론들 중에서 주로 수용자의 인지요소에 대한 평가 차원 측정을 통해 미래 행위를 예측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된 이론적 논의들 가운데 보호동기이론에 근거하여 미디어로부터 전달된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 정도가 미디어 이용자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의 심리적 기제(지각된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매개되어 최종적으로 개인 및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성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대해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 정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 정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보호동기 가운데 신종플루에 대한 인지된 ‘대처효능감’을 제외하고 인지된 ‘심각성’, ‘취약성’,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대해서도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은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 정도가 미디어 이용자의 심리적 보호동기들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 모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이용자의 보호동기는 인지된 ‘취약성’과 ‘대처효능감’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연구모형들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특정 질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있어서 건강보호 대상(자신 혹은 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심리적 보호동기들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시 논의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존 연구와 다르게 미디어 노출이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개인 및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 연구모형에서 심리적 보호동기요인의 인과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들에 근거한 다양한 연구들은 미디어 노출(자극)이 미디어 이용자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미디어 노출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미디어 이용자의 심리적 보호동기들에 의한 영향이 미디어 이용자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더 유의미함을 제시하고 있다. 질병 관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디어 노출은 건강행위를 위한 행위단서(cue to action)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였다(Hanson & Benedict, 2002, 최명일·김경환·주지혁, 2009에서 재인용). 또한 미디어 노출은 질병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주목도를 높여서 특정 질병 관련 위험평가와 대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우형진,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신종플루에 대한 질병 정보가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획득 가능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광우병의 경우 관련 정보를 거의 미디어에 의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행위적 반응은 미디어 노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경우 확진 환자의 급속한 증대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질병의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형진(2006, p. 268 참조)의 텔레비전 뉴스 시청량 수준에 따른 질병 현실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보다 질병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생소한 다발성 골수암, 파키슨병, 루게릭병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특정 질병에 대한 행위촉발 단서의 영향력이 미디어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이고 생활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미디어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종플루의 경우 광우병과 달리, 감염자와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제로 주변에서 신종플루 환자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감염자 혹은 관련자와의 대인커뮤니케이션

(interpersonal communication)에 의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건강보호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한 미디어 노출 영향이 경험이나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영향에 의해 상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친 연구결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두 연구모형의 공통점에서 제시된 함의는 미디어 노출이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질병 관련 미디어 정보가 질병대처지식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효능감 요인 설명력은 미디어 이용자가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법을 미디어가 아닌 다른 채널(실제 감염자 및 관계자 등)에서 취득할 수 있었거나, 제시된 대처방법의 효과가 낮다는 자기 인식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나 미디어에서 신종플루 예방수칙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방법이 “마스크 하기”, “손 씻기”, “기침 시 손으로 가리기”였다. 이와 관련된 대대적인 신종플루 예방캠페인에 의해서 전 국민의 행동양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머니투데이, 2009.8.28), 옆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만 하여도 공포감을 느껴(뉴스한국, 2009.9.2) 피할 정도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급증하였다는 사실은 제시된 대처방법이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신종플루 대처효능감이 유의미하지 못한 것은 실제로 제시된 신종플루 대처방식이 유효하지 못했음을 미디어 이용자가 인식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연구모형의 차이점은 건강보호 대상이 자신을 목적으로 할 때와 타인을 목적으로 할 때, 미디어 이용자의 심리적 보호동기 요인들이 다르게 조합되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인지된 취약성의 경우, 건강보호 대상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관련한 행동 결정에 있어서 인지된 심각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결정에 있어서는 인지된 취약성이 영향을 미친다”(Maddux & Rogers, 1983; Sheeran & Abraham, 1995; 최명일 · 김경환 · 주지혁, 2009, p. 62에서 재인용)는 결과와 동일하다.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대하여 인지된 심각성, 취약성, 자기효능감은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보호동기이론의 핵심인 위협 평가(threat appraisal)가 제대로 작동했고, 미디어에서 제시된 신종플루 대처법이 효과적이지는 못하지만 자신은 개인위생을 위해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서는 인지된 취약성과 대처효능감만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러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첫째, 인지된 취약성과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 간의 인과관계에서 자신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높은 경우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를 더 많이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타인의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한 행동의도가 결국은 자신의 감염을 막기 위한 동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공중위생을 철저히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건강보호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자의 질병에 대한 공포인식과 보호동기 추구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질병 공포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보호동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이민규 · 김영은, 2009)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반대로 공중 혹은 타인의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동기 추구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와 달리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서는 대처효능감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역 제3자효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제3자 효과’가 미디어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자신보다는 타인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라면



‘역3자효과’는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긍정적인 경우 타인보다는 자신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차동필·한균태, 2003). 즉, 미디어에서 전달한 신종플루 대처방법에 대한 효과 인식은 타인의 신종플루 감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효능감과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는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을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 및 이론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결국 건강행위 관련 이론적 논의들의 핵심은 외부자극으로서의 미디어 질병 정보 노출은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기제와 상황적 변인에 의해서 매개된다. 본 연구의 의의가 개인의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단서는 미디어 노출과 심리적 보호동기라는 것인데, 차후 관련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질병이 어떤 종류인지, 즉 미디어에 의존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정보인가에 따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해당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들은 다른 조합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위험군 환자들이었다. 즉 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강보호 행위의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신종플루에 대한 미디어 정보 내용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가 제시하는 신종플루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 간의 관계 타당도를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셋째, 편의표집에 의해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 넷째,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를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에서 신종플루 관련 뉴스를 어느 정도 끝까지 시청하거나 읽었는가로 측정하는 것은 타당도 결여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 실험연구가 아닌 이상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신종플루 관련 정보의 소비 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는 2009년 11월이었다. 이 시기에는 유명 연예인의 자녀가 신종플루로 사망한 직후이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신종플루 백신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였다. 따라서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이후에 상황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차후의 연구는 신종플루 정보 노출과 행위의도 간의 실험연구를 통해서 보호동기요인들의 정밀한 작동 관계를 살펴보고, 신종플루 공포에 대한 회피 및 심리적 반발과 낙인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질병 관련 미디어 정보 노출과 미디어 이용자의 건강보호 행위의도 간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Ⅰ 참고문헌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김동섭 (2009.11.17). 신종플루 전쟁, 이기고 있다. 『조선일보』, 39.  
 김원표 (2006).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서울: 사회와 통계.

- 김은옥 (2009). 신종플루 대유행을 계기로 알아보는 독감의 역사. 『출판저널』, 12월호, 45.
- 김진현 (2006).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수요자 요구조사: 소비자 수요조사』. 인제대학교(편).
- 김철중 (2009.11.10). 치사율 낮지만 ‘돌발변수’는 있다. 『조선일보』, 12.
- 대한의학회 (1999). 국내 공중과 TV를 통한 건강정보의 적절성 평가 연구. [Online], Available: <http://www.kams.or.kr>
- 박영신·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서울: 교육과학사.
- 박정의·손명세 (2001). 『공중보건과 의학보도(한국언론재단 연구서 2001-13)』.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신종인플루엔자A(H1N1)종합안내. [Online], Available: <http://www.mw.go.kr>
- 배병렬 (2004). 『구호방정식모형을 위한 SIMPLIS 활용과 실습』. 서울: 청목출판사.
- 안윤옥 (1997). 일간지에 게재 보도된 의학, 의료정보 내용의 분석. 『대한의사협회지』, 40권 9호, 1208~1214.
- 우형진 (2006). 문화계발이론의 ‘공명효과’(resonance effect)에 대한 재고찰: 위험인식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254~276.
- 우형진 (2007). 텔레비전 뉴스 시청이 시청자의 건강증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308~333.
- 이민규·김영은 (2009). 질병 관련 인터넷 정보 이용 효과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4호, 506~539.
- 이호준·최명일 (2006). 라디오 청취동기의 요인구조와 측정척도의 개발. 『방송연구』, 겨울호, 153~176.
- 송해룡·김원제·조항민 (2005). 과학기술 위험보도에 관한 수용자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9호, 1208~1214.
- 심우혁 (2005.11.8). 전문병원사이트 성장, 정보&학문사이트 하락. 『랭키리포트』 [On-line], Available: [http://rankey.com/marketing/data\\_rankeyinfo.php?no=70](http://rankey.com/marketing/data_rankeyinfo.php?no=70)
- 복지부, 신종플루 예방수칙 발표 (2009.4.1). 『조선닷컴』 [Online], Available: <http://www.chosun.com/cp/edaily/200908/16/20090816000073.html>
- 조현철 (2003). 『구호방정식 모델 SIMPLIS & AMOS』. 도서출판 석경.
- 전영옥 (2005). 웰빙 문화의 등장과 향후 전망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Online], Available: <http://www.seri.org>
- 질병관리본부 (2010). 신종인플루엔자A(H1N1). [Online], Available: <http://www.flu.cdc.go.kr>
- 차동필·한균태 (2003). 공익광고와 제3자효과. 『한국언론학보』, 제47권 3호, 38~59.
- 최명일·김경환·주지혁 (2009). 행위단서로서 광우병 관련 미디어 노출이 미국산 쇠고기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50~65.
- 편만섭 (2000). 올바른 건강정보 알리기. 『대한의사협회지』, 제43권 제2호, 192~193.
- 돼지 신종플루에 구제역까지...먹을거리 비상 (2010.1.9). 『메디컬투데이』 [Online], Available: [www.mdtoday.co.kr](http://www.mdtoday.co.kr)
- 신종플루, 경계부족-공포조장 논란 (2009.8.28). 『미디어오늘』 [Online], Available: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482>
- 신종플루 확산공포가 가져온 풍경들 (2009.9.2). 『뉴스한국』 [Online], Available: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w200909022128\\_3191664](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w200909022128_3191664)
- 신종플루는 일반독감일 뿐...WHO·제약사·학자 비리 합작 (2010.1.12). 『한겨레』 [Online], Available: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398461.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398461.html)
- 황치성·심재웅(2009). 『신종플루와 언론(연구서 2009-05)』, 한국언론진흥재단.
- AI 억제하는 김치, 신종플루에도 효과만점? (2009.5.19). 『머니투데이』 [Online], Available: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51914573040899&outlink=1>  
 WHO, 신종플루 경보단계 팬더믹으로 격상 (2009.6.11). 『뉴스시스』 [Online], Availabl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723424>  
 10월 신종플루 대란? 위생용품 사재기 열풍 (2009.8.28). 『머니투데이』 [Online], Available: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82815552324431&type=1>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eck, K. H., & Frankel, A. (1981). The effects of health threat seriousness and personal efficacy upon inten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1, 401~405.
- Boer, H. & Seydel, E. R. (1996).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In *Predicting health behavior: Research and practice with social cognition models* (ed). M. Conner & P. Norman, 95~120,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 Brayant, J. & Thompson, S. (2001).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배현석 역 (2005). 미디어 효과의 기초. 서울: 한울.
- Carron, A. V., Hausenblas, H., & Estabrooks, P. (2002). *The Psychology of Physical Activity*. 김성옥 · 김병준 · 김경원 · 한명우 · 송우엽 공역 (2004). 운동심리학. 서울: 대한미디어.
- Cismaru, M. (2006). *Us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o Increase the Persuasive of Public Service Communications (SIPP Public Policy Paper No. 40)*, 1~29. University of Regina [On-line], Available: [www.uregina.ca/sipp](http://www.uregina.ca/sipp)
- DataMonitor (2002). Who is looking for Health Information Online?: A Segmentation Analysis of the Online Consumer. [On-line], Available: <http://www.datamonitor.com/~8d1ca8ae57bd4878aec44d6f2aa1c32b~/industries/research/?pid=BFHC0470>
- Hanson, J. A. & Benedict, J. A. (2002). Use of the health belief model to examine older adults' food-handling behaviors. *Journal of Nutrition Behavior*, 34, 25~30.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on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Madden, M & Fox, S. (2006). Finding Answers Online in Sickness and in Health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Report) [On-line], Available: <http://pewresearch.org>
- Maddux, J. E., & Rogers, R. W. (1983). Protection motivation and self efficacy: A revised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19, 469~479.
- McGuire, W. J. (1984). Public communication as a strategy for inducing health-promoting behavioral change. *Preventive Medicine*, 13, 299~319.
- O'Donnell, D. & Velicer, W. F. (1988). A decisional balance measure and the stages of change mode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3, 729~750.
- Prentice-Dunn, S., & Rogers, R. W. (1986).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nd preventive health: Beyond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1, 153~161.
- Rice, R. & Atkin, C. (1989). *Public Communication Campaign*. 2nd Edition, London: Sage. 한정호 · 이현우 역 (1999). 공익캠페인. 서울: 나남.
- Rippetoe, P. A. & Rogers, R. W. (1987). Effects of Components of Protection-Motivation Theory on Adaptive and Maladaptive Coping With a Health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March), 596~604.

- Rosenstock, I. M. (1974). 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 328~335.
- Sheeran, P. & Stafford, T. F., & Chowdhury, J. (1996). Predispositions toward green issues: The potential efficacy of advertising appeals. *Journal of Current Issue and Research in Advertising*, 18(1), 67~79.
- Tanner, J. F. Hunt, J. B., & Eppright, D. R. (1991). The protection motivation model: A normative model of fear appeal. *Journal of Marketing*, 55, 36~45.
- Triandis, H. C. (1980). *Values, attitudes,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Ed). M. M. Pag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Verbeke, W., Vianene, J. & Guiot, O. (1999). Health communication and consumer behavior on meat in Belgium: From BSE until dioxi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4(4), 345~357.
- Weinstein, N. D. (1993). Testing four competing theories of health-protective behavior. *Health Psychology*, 12, 324~333.
- Witte, K. (1992). The role of threat and efficacy in AIDS prevention. *International Quarterly of Community Health Education*, 12, 225~249.

(투고일자 : 2010.5.29, 수정일자 : 2010.7.7, 게재확정일자 : 2010.7.20)

ABSTRAC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News Usage on Influenza A(H1N1) and Media Users' Behavioral Intention toward Personal and Public Health Protection:  
Focusing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Yeora Ki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news usage on Influenza A(H1N1) and media users' behavioral intention toward health protection.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d causal relationships among exposure of media information on Influenza A(H1N1) as an independent variable, psychological protection motivation factors such as perceived severity, vulnerability, response efficacy, & self-efficacy as mediated variables and behavioral intention on personal and public health protection as dependent variables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rated to 460 college students. The result indicated the followings. First, the level of news usage on Influenza A(H1N1)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influencing behavioral intention toward personal and public health protection. Second, perceived severity, vulnerability, and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 variables on behavioral intention toward personal health protection whereas perceived vulnerability and response efficacy were significant on public health protection. The function among factors i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is dependent upon whom protected from illness.

Keywords: Influenza A(H1N1),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Behavioral intention

---

\* Legislative Researcher, Culture, Media, & Telecommunications Team,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